

SLAP 병변의 관절경적 봉합술 후 임상적 결과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병원 정형외과

노행기 · 김재균 · 박정호

목 적

견관절의 단독 SLAP 병변에 대하여 관절경적 봉합술 후 치료 결과를 평가하고 수상 기전과 임상적 결과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

2002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단독 SLAP 병변으로 수술 받은 환자 63명(65례) 중 1년 이상 추시 관찰이 가능했던 18명(19례)를 대상으로 하였다. 환자의 평균 연령은 32.6세였고 남자가 16례, 여자가 3례였으며, 우측이 13례, 좌측이 6례였다. 스포츠 손상이 8례, 교통사고 2례, 낙상 및 추락 사고 5례였고 나머지 4례에서는 수상 기전을 알 수 없었다. 임상적 결과의 평가는 visual analogue scale과 UCLA 견관절 기능 점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.

결 과

견관절 외전 및 외회전시 동통이 가장 흔한 증상이었으며, 수술적 이학적 검사는 환자의 81%에서 compression rotation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다. VAS 점수는 술 전 평균 6.7점에서 최종 추시상 2.3점으로 호전되었으며, UCLA점수는 술 전 평균 22.6점에서 최종 추시시 30.1점으로 호전되었다. 수상 기전과 임상적 결과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다.

결 론

단독 SLAP 병변에 대하여 관절경적 봉합술을 시행하고 84%에서 양호 이상의 결과를 얻었으며, 수상 기전이 임상적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.

색인 단어: SLAP 병변, 관절경적 봉합술